

보도자료

2011년 4월 25일(월) 브리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전파기반팀 최우혁 팀장(☎ 750-2230)
전파기반팀 이경우 사무관(☎ 750-2241) kyungchi@kcc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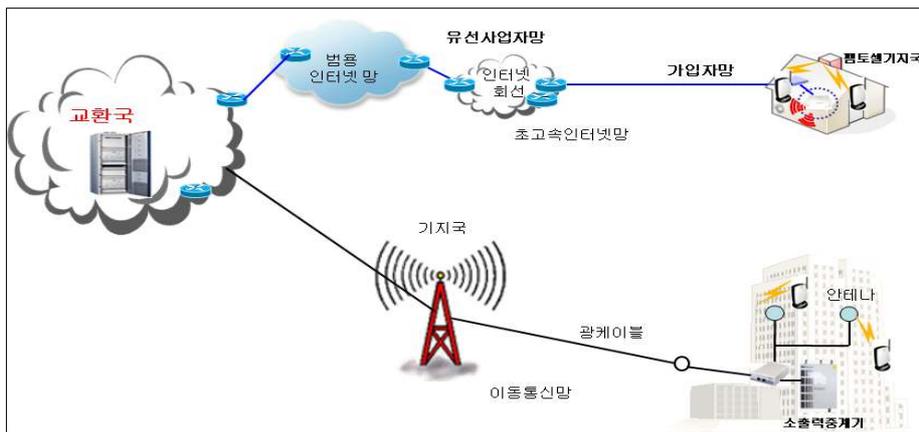
펨토셀(소형 이동통신 기지국)로 트래픽 급증 잡는다.

- 이동사는 트래픽 분산, 이용자는 통화 품질 향상 -

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.

※ 펨토셀 기지국 : 1000조분의 1(10^{-15})을 의미하는 펨토(femto)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(cell)의 합성어로 촘촘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써, 가정·사무실 등 옥내 지상·지하의 작은 지역(30~50m)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**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**을 의미

【펨토셀 개념도】



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(1FA)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(2FA) 및 융합형(2FA+WiFi)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.

※ 소용량(1FA) 동시 사용자수 8명, 대용량(2FA) 및 융합형(2FA+WiFi)은 25명 전·후 예상

금번 규제 완화로 대용량 및 융합형 펌토셀이 확대 설치되면서 이용자는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서비스 음영지역 에서도 통화 끊김이나 접속불량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·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하게 되고,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트래픽을 분산시키는데 일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.

< 펌토셀과 Wi-Fi 주요 특징 비교 >

구 분		펌토셀	Wi-Fi
동일한 점	출 력	10mW/MHz 이하	10mW/MHz 이하
	중계선	인터넷 망	인터넷 망
차이 점	주파수	사업자 할당 주파수 (800M/2.1G/2.3GHz)	비면허 공용주파수 (2.4GHz/5G)
	설치주체	사업자	사업자 또는 이용자
	핸드오버	지 원	미 지원

끝.